

# 창업교육이 창업열정과 즉흥성을 매개로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윤선\*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창업학, 박사수로

이일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 국문 요약

최근 세계적인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난이 공통적인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고용률은 OECD국가의 2019년 평균 고용률에 비해 10%이상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청년층 취업난의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청년 창업이 오랜 기간 동안 장려되고 있으며,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이 이루어지며 대중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의 효과 및 필요성을 확인하는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창업에 대한 인식과 창업률은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창업 이후에도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한 현실과 이를 둘러싼 환경적 난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감정적 관점에서의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감정요소 중에서는 창업열정과 즉흥성을 매개로 효과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창업교육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핵심어: 창업교육, 창업열정, 즉흥성, 창업의도

## 1. 서론

최근 청년실업률은 2020년 이후 9% 이상으로 상승하였으며, 청년층 체감실업률 지표 또한 2015년 21.9%에서 2020년 25.1%로 대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KERI 유진성, 2021). 세계적인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난 또한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고용률은 2019년 43.5%로 OECD국가의 2019년 평균 고용률인 53.9%에 비해 10%이상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극심한 청년 취업난을 보여주고 있다(유진성, 2021). 이에 대한 해법으로 청년 창업이 오랜 시간 장려되어 오고 있으며,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이 이루어지며 대중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불어 창업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창업 지원은 물론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서의 창업교육

이 구심점이 되고 있으며, 국내 대학은 물론 창업 전문 교육 기관에서 운영되는 창업교육 커리큘럼의 단편적 또는 단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선형 연구에서 극복해야 할 한계점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최종인·양영석, 2012; 김윤선·이일한, 2022),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의 효과 및 필요성을 확인하는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이재석·이상명, 2015; 김윤선·이일한, 2022). 이는 창업학문의 발전과 더불어 창업교육의 효과성이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창업교육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학점 취득을 위해 창업과목을 수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교육의 주요 목표는 창업과 관련한 전문 지식의 습득과 창업을 하는 것에 긍정적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창업기회의 포착은 물론 창업의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창업과정(entrepreneurial process)의 이해를 증가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Li & Wu, 2019; 김윤선·이일한, 2022). 둘째, 경영교육과 유사한 관점

\* kysluck01@naver.com

\*\* lih2114@hanmail.net

의 교육방식으로 창업교육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많은 창업 관련 교육에서 경영교육과 비슷한 커리큘럼이 제공되어, 창업교육의 운영에 혼선을 미치므로 창업교육만의 특성과 목적을 전달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경영교육과 명확한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다(김윤선·이일한, 2022). 이러한 창업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유의미한 연구로 경영교육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창업교육을 다차원적으로 구분하여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진행되었다(한가록·이재은, 2021; 김윤선·이일한, 2022).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지원 수준, 창업기회 등을 조절변수 또는 매개변수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변수는 감정적인 측면이 아닌 환경적, 인지적 측면을 반영한 사항이다. 창업교육의 주요한 목적은 창업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창업가가 육성시킬 수 있으며(Garavan & O’Cinneide, 1994; 이재석·이상명, 2015; 김윤선·이일한, 2022), 개인이 기업가가 되는 것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Walter & Block, 2016). 따라서 개인의 본래 타고난 감정적인 측면이 창업교육을 받을 때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영향력에 대한 논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창업교육이 감정적 요소인 창업열정과 즉흥성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창업 이후에도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한 현실과 이를 둘러싼 환경적 난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감정적 관점에서의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감정요소 중에서는 창업열정과 즉흥성을 매개효과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창업교육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견뎌내고 인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불확실성에 인내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2.1. 창업교육

선행연구에서 개인이 미래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기회를 식별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연구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Venkataraman, 1997), 이 프로세스는 주로 전략적으로 계획된 기회 식별 순서와 평가 및 실행으로 설명되어 왔다(Shane & Venkataraman, 2000). 기업가정신은 원래 불어의 기업가(entrepreneur)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으며 ‘중간자’라는 의미의 청부업자를 뜻하는 용어였는데,

혁신적이고 관리적 역량의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도모하는 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혁신, 성장, 창의성, 위험추구, 특이함, 적극적 행동 등이 기업가 정신의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고 자원을 조직화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성공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 조직관리 및 시간 관리능력, 인내력, 풍부한 창의성, 도덕성, 목표설정 능력, 리스크테이킹, 정보관리, 해결대안 제시능력, 창조성, 의사결정능력 등이 요구된다. 이는 창업행동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모델로 보이지만, 종종 기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매우 불확실하고, 참신하며 난류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는 완벽하지 못하다(Baron, 1998).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Cardon et al.(2005)은 사업 설립 과정을 잘 알려진 양육 과정과 비교하고 기업가정신 과정을 감정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Donnellon et al.(2014)에 따르면 대학의 창업 교육 과정을 추적한 결과,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학의 창업교육은 자신의 진로 설계를 하며 새로운 가치창출을 향한 도전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을 주요한 교육목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주장하였다. 기업가정신 분야의 대표적 연구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슈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새로운 생산방법과 새로운 상품개발을 기술혁신으로 규정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앞장서는 기업가를 혁신자로 보았다. 여기서 기업가정신이란 기업가가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도모함에 있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하는 의식을 일컫는다(김윤선·이일한, 2022).

Bechard & Toulouse(1998)는 비즈니스 창출, 소기업개발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 훈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 형식화된 가르침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외의 많은 대학들은 창업과 관련한 강의와 학과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실무적인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창업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고등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은 공공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교육이라는 핵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만족을 통한 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강만수·하홍렬, 2011). 이러한 창업교육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매우 중요하며,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직접적으로 혹은 다양한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검증에 대한 시도가 요구되고 있다(Fayolle & Gailly, 2015; Nabi et al., 2018; 김명숙 외, 2021). 국내에서는 김명숙 외(2021)가 창업교육에 대한 실증연구 총 112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검토(comprehensive review)를 진행한바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보다 객관화하였다. 또한 오현성 외(2020)는 기존 창업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변수를 중심으로 접근한 것과 달리 사람중심 접근법을 활용하여 창업교육동기를 분류하였으며, 동기특성을 다면적으로 반영한 창업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창업교육의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개인이 창업가의 역할을 수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며, 교육생들이 모험심과 정열을 지니고, 스스로 무언가를 개척해 나가는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가 역할에 필요한 열정을 성공적으로 끌어내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정인·이일한, 2014). 창업교육이 일반적인 경영교육과 같이 사업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개념적 특징을 보이기도 하지만, 학습 자체의 맥락보다는 실제에서의 활용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변화가 수반되고 있는 이유이다(김운선·이일한, 2022).

이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역할과 효과를 종합하여 보면, 창업교육을 통해 대학생의 창업행동에 대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창업과 기업 운영 과정에서 맞이하는 불확실하고, 환경적 난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교육을 감정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여 학생들의 기업가적 정체성의 구축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 2.2. 창업열정

창업가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이를 추구하는 동안에 꿈을 놓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결과가 상당기간 좋지 않더라도 열정을 잃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Cardon et al., 2005). 창업을 시작하거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기업가에게 필요한 요인으로 노력, 능력, 지식과 열정을 꼽을 수 있으며, 그 중 열정은 실패한 기업가와 성공한 기업가를 구분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Fellnhofner, 2017).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은 행동을 하겠다는 동기부여라는 열망(desire) 없이 수행되지 않는다(Perugini & Bagozzi, 2001). 실질적인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로서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과 같이 의식적인 행동의 한 형태, 의지적 통제 하에 개인의 의사 결정과 행동, 관념에 집중하고 있다(Londono et al., 2020). 반면에 열정은 주로 도박, 로맨스, 스포츠, 인터넷 사용과 같은 수많은 비업무 활동의 맥락에서 열정이 연구되었으며, 비이성적 측면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심리적, 정서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입증되었다(Amiot et al., 2006; Mageau et al., 2005; Rousseau et al., 2002; Seguin-Levesque et al., 2003). 비슷한 맥락으로 자신의 소명에 대한 열정적인 신념이 목적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대의를 위해 희생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테러리스트의 경우를 볼 수 있다(Cardon et al., 2005). 열정은 기업가정신의 핵심으로 간주되며, 비즈니스 창조 과정과 그 결과뿐만 아니라 창업행동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Cardon et al., 2013; Santos & Cardon, 2019).

Vallerand et al.(2003)은 열정은 동기를 촉발하며 행복을 향상시키고,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열정의 이원론적 모델을 개념화하여 조화 열정과 강박 열정을 구분하여 다차원적 차원에서 열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이 지각 및 정서, 감정적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율성과 유능성은 자율적인 내재화의 동기로서 조화열정을 형성하게 하며, 관계성은 통제적인 내재화의 동기로서 강박열정을 형성한다고 보았다(Vallerand et al., 2003; 박재홍, 2021).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창업열정은 창업을 하기 위한 과정과 창업이후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동기적, 정서적 요인으로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열정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한 가지 목표를 열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창업의도로 이어지는 추진력을 갖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하겠다.

## 2.3. 즉흥성

즉흥성(Improvisation)은 본래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생각한 것을 계획 없이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일컫는데 이는 창업가들이 어떻게 전략적 계획을 하고, 인지적 편향 및 휴리스틱에서 벗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프레임워크(Frame work)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기업가정신 이론을 확장한다(Hmieleski & Corbett, 2006). 이는 질문의 방향 또는 행동의 전개를 알지 못한 채 가능성을 탐색하고, 지속

적으로 실험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Frank, 1998). 기존의 즉흥성에 대한 개인의 성향과 창업의도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입증하는 실증 연구 결과는 창업가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휴리스틱 사고(Heuristic thinking)에 더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Hmieleski & Corbett, 2006). Hmieleski & Corbett(2006)은 즉흥성을 변화, 특히 고도의 성장 산업에서 운영되는 새로운 벤처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동적 조건에서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행동 전략으로 보았다. 또한 즉흥적인 활동은 조직의 문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무 프로세스에 통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창업 과정(entrepreneurial process)에서 즉흥성은 중점적으로 고려되며, 이를 통해 즉흥적인 성향과 기업가적 의도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확인 되었으며, 즉흥적인 성향에 따라 기업가적 기회를 찾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Hmieleski & Corbett, 2006).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즉흥성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행동반응으로 창업 활동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상황을 창업교육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유의미한 추진력을 갖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하겠다.

## 2.4. 창업의도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는 새로운 창업을 시도하거나 기존의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창업에 대한 행위 또는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Fishbein & Ajzen, 1975), 창업을 일으키기 위한 욕구 또는 희망 등 창업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이라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Tran & Korflesch, 2016). 창업의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창업교육 및 동기에 따른 창업의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Wilson et al., 2007). 창업의도의 선행요인으로 기업가정신이 주요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창업교육을 통해서 기업가정신이 향상되므로, 창업교육의 전문성은 창업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창업의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김윤선·이일한, 2022; 한가록·이재은, 2021). 이를 통해 창업가는 새로운 벤처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의도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비(非)창업가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채거나 무시하지 못하는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적시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Dutta et al., 2011).

창업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창업교육을 통해 실제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연결되는지에 여부이며,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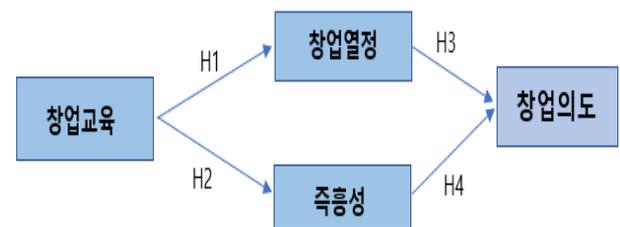
위해서는 창업교육을 통하여 관련지식의 습득만이 아니라 향후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이혜진·김진수, 2019). 따라서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기업가적 의도를 증가시키는데 어떻게 그리고 왜 작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메커니즘(mechanism)을 조사함으로써 창업 과정(entrepreneurial process)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Li & Wu, 2019).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창업교육을 통해 대학생의 창업행동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이 창업열정과 즉흥성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열정과 즉흥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3.2. 가설설정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각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3.2.1. 창업교육과 창업열정

Donnellon et al.(2014)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에 도움이 되며, 이때 창업열정은 기업가가 강한 정체성을 경험함으로써 발생하곤 한다(Murnieks & Mosakowski, 2006). 또한 Li & Wu(2019)는 학생들이 창업교육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팀 협력을 인식하는 경우에 자기 동기적요인인 자기 효율성과 열정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창업교육에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창업교육은 창업열

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창업교육과 창업열정의 관계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창업교육은 창업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창업교육과 즉흥성**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 과정을 수강한 대학생들은 압박감을 덜 느끼며, 취미로 사업을 즉흥적으로 시작할 가능성과 이를 통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이를 수강하지 않은 MBA 학생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Hmieleski & Corbett, 2006).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창업교육은 즉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창업교육과 즉흥성의 관계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창업교육은 즉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창업열정과 창업의도**

Cardon et al.(2009)는 창업열정이 기업가정신의 결과를 조정하는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고자 개념 체계를 이론화하였으며, 창업열정 모델에서 창업열정이 기회를 식별함에 있어 기업가적 효율성(Entrepreneur's effectiveness)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팀 협력을 인식하는 경우에 자기 효율성과 열정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기업가적 자아 형성과 창업열정에 대한 창업교육의 효과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로 이어졌다(Li & Wu, 2019).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창업열정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창업열정과 창업의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창업열정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즉흥성과 창업의도**

즉흥성에 대한 개인의 성향과 창업의도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입증하는 연구들은 기업가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체계적인 사고를 하기보다는 휴리스틱 사고에 더 기울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Hmieleski &

Corbett, 2006). 즉흥적인 행동을 하며 압박감을 덜 경험하고 취미로 사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즉흥성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즉흥성과 창업의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4: 즉흥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연구방법**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연구 변수들의 개념적 정의를 재정립하고, 선행연구의 측정항목으로 설문문항을 다음의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문항 수
창업교육	삶의 설계와 실천 창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게 하여 미래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역량을 두루 가르치는 창업 관련 교육	- Walter & Block(2016) - 정현배(2017) - 이혜진·김진수(2019) - Hmieleski & Corbett (2006) - 김정인·이일한(2014) - 한가록 외(2021) 한가록·이재은(2021) 김윤선·이일한(2022)	10
창업열정	창업의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의 역경에 맞서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열망에 대한 정도	- Cardon et al.(2009) - Li & Wu(2019)	5
즉흥성	창업 전 과정의 의사결정과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서의 즉흥적인 성향의 발휘 수준	-K.M.Hmieleski & A. C. Corbett(2006)	6
창업의도	현재는 물론 미래에 자발적으로 창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 실천의지의 정도	- Chen(2006) - Yusof et al.(2007) - Li & Wu(2019) - 옥준우 외(2020) 김윤선·이일한(2022)	8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각 변수의 정의를 재정립하여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 4.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모형은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대학생이 지닌 창업열정과 즉흥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의 4년제 대학인 C대학교, S대학교, ST대학교, S여자대학교에서 창업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9월 22일~10월 21일 약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에 C대학교 74부, S대학교 28부, ST대학교 35부, S여자대학교 32부를 각각 회수하여 총 169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답변에 충실하지 못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167부의 설문지만 유효자료로 인정하고,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 V. 실증분석 결과

### 5.1. 표본특성

본 연구 샘플의 표본의 특성을 요약하면 남학생 34명(20%), 여학생 133명(80%)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58명(35%), 2학년(32%)로 나타나 고학년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족 중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는 78명(47%)로 나타났으며, 창업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이 100명(60%)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여전히 대학생에게서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학문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창업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높고, 저학년의 학생이 수강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창업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표본의 특성

구분		응답자(수)	비율(%)
성별	남성	34	20.35
	여성	133	79.64
학년	1학년	58	34.73
	2학년	54	32.33
	3학년	23	13.77
	4학년	10	5.98
	5학년	22	13.17
가족의 창업경험	유	78	46.7
	무	89	53.29
창업활동 경험	유	57	34.13
	무	110	65.86
창업교육 받은 적	유	100	59.88
	무	67	40.11

## 5.2. 측정모델평가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변수에 대한 척도의 신뢰성 검증은 표준화된 데이터들이므로 평균상관관계에 근거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고자한다. 연구의 변수 사이의 판별타당성 및 관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한다. 또한 최종분석에 사용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3.0을 이용한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연구의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개별적인 가설 검증과 함께 연구 변수들의 관계를 모두 포함한 모델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민정·이새롬·김병근(2021). 예비창업가의 열정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6(6), 71-84.
- 박재홍(2020). 소셜벤처 창업가의 열정과 번아웃과의 관계 및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이원론적열정모델이론과 자기결정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중앙대학교 대학원.*
- 한가록·이재은(2021). 창업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창업동아리원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 지원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6(6), 261-279.
- 안태욱·박재환(2018).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진로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벤처창업연구*, 13(2), 177-192.
- 오현성·변지연·김준수(2020). 대학생 창업교육동기에 대한 사람 중심접근법: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창업의도 및 창업 유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9), 365-379.
- Tran, A. T. P., & Von Korflesch, H.(2016). A Conceptual Model of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 Based on th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sia Pacific Journal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10(1), 17-38.
- Baron, R. A.(1998). Cognitive Mechanisms in Entrepreneurship: Why and When Entrepreneurs Think Differently Than Other Peopl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 275-294.
- Buhr, K., & Dugas, M. J.(2002).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nglish ver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 931-945.
- Cardon, M. S., Zietsma, C., Saporito, P., Matherne, B. P., & Davis, C.(2005). A tale of passion: New insights into entrepreneurship from a parenthood metapho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1), 23-45.
- Donnellon, A., Ollila, S., & Middleton, K. W.(2014). Constructing entrepreneurial identity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12(3), 490-499.

- Wilson, F., Kickul, J., & Marlino D.(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87-406.
- Fellnhofner, K.(2017). The Power of Passion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Role Models Encourage Passion.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20(1), 58-87.
- Frank, J. B.(1998). Creativity and Improvisation in Jazz and Organizations: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Learning. *ORGANIZATION SCIENCE*, 9(5), 605-622
- Freeston, M. H., Rheame, J., Letarte, H., Dugas, M. J., & Ladouceur, R.(1994). Why do people wor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6), 791-802.
- Hmieleski, K. M. & Corbett, A. C.(2017). Proclivity for Improvisation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Milwaukee*, 44(1), 45-63.
- Li, C., Murad, M., Shahzad, F., Khan, M. A. S., Ashraf, S. F., & Dogbe, C. S. K.(2020). Entrepreneurial passion to entrepreneurial behavior: role of entrepreneurial alertnes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proactive personality. *Frontiers in Psychology*, 11, 1611.
- Li, L., & Wu, D.(2019).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does team cooperation matter?. *Journal of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9(1), 1-13.
- Fishbein, M., & Ajzen, L.(1975). *Beliefs,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Dugas, M. J., Hedayati, M., Karavidas, A., Buhr, K., Francis, K., & Phillips, N. A.(2005).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information processing: Evidence of biased recall and interpreta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9(1), 57-70.
- Murnieks, C., & Mosakowski, E.(2006). *Entrepreneurial passion: An identity theory perspective*. Atlanta: Presented at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 Shane, S., & Venkataraman,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Vallerand, R. J., Blanchard, C., Mageau, G. A., Koestner, R., Ratelle, C., Léonard, M., Gagné, M. & Marsolais, J.(2003). Les passions de l'âme: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4), 756-767.
- Venkataraman, S.(1997). *The Distinctive Domain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in 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Eds. J. Katz and R. Brockhaus. Greenwich, CT: JAI Press.
- Vera, D. M.(2002). *Improvisation and its Impact on Perform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 Tarabishy, A., Solomon, G., Fernald, L. W., & Sashkin, M.(2005). The entrepreneurial leader's impact on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in dynamic markets. *Journal of Private Equity*, 8, 20-29.
- Van der Vegt, G. S., Van de Vliert, E. & Huang, X.(2005). Location-level links between diversity and innovative climate depend on national power dist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8(6), 1171-1182.
- Vroom, V. H.(1964).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Wiley.
- Waldman, D. A. & Yammarino, F. J.(1999). CEO charismatic leadership: level-of-management and levels-of-analysis effect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2), 266-285.
- Zang, Z., Waldman, D. A. & Wang, Z.(2012). A multilevel investigation of leader-member exchange, informal leader emergence, and individual and team performance. *Personnel Psychology*, 65(1), 49-78.